



|  |             |  |   |   |  |
|--|-------------|--|---|---|--|
| <br>인천광역시 |             | <b>보 도 자 료</b>   |   |  |  |
|  |             | 배포일자   | 2022년 12월 15일(목)<br>총 2매                      |   |  |
| 담당<br>부서   | 수산자원<br>연구소 | 담당자  | • 자원조성팀장 김재현 ☎440-6402<br>• 담당자 황인기 ☎440-6418 |   |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인천시, 지역 어업 육성 위한 연구 성과 공유

### - 2022년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4일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최경주)에서 2022년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먼저 2022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방류한 수산 종자 6품종(참조기 16만, 꽃게 210.1만, 주꾸미 52.2만, 갑오징어 17.1만, 바지락 61만, 참담치 18만마리), 총 374.4만 마리에 대한 방류실적을 보고했다.

이어 양식기술 향상 및 대량 생산기술 연구를 위한 말백합 등 5종의 주요 연구내용과 백령도 전복 고유종 보호를 위해 추진한 유전자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수산생물을 이용한 갯벌 복원 연구, 해양생물 희귀·보호종(달랑게) 생태조사, 국가지정병성감정기관운영, 유용 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 인천 연안 해조류 생태 조사 및 산업화 연구, 친환경양식어업연구 등 해양생태계·양식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인천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정부정책 연계형 신규 연구개발과제인 “친환경 생태통합양식 (IMTA) 기술을 활용한 CO2 제거 기술 개발”에 대해 인천대학교 김장균 교수가 연구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2023년에도 지역 어업 육성을 위해 인천에 적합한 우량 수산 종자 생산·방류를 실시해 수산자원 증대와 회복에 노력할 예정이며, 기존 연구사업의 심화 및 연구범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최경주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보고회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추진한 연구내용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연구사업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자리였으며, 앞으로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능력 향상을 통해 수산자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관련 사진

